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5월 3주~5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 ATR/BPN, Giant Sea Wall 사업 부지 확보 추진¹⁾(Bisnis, 5/6)
 - ATR/BPN(농지공간계획부/토지청)은 5월 6일 Giant Sea Wall(거대 방조제. GSW)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방안 및 공간계획 정합화 계획을 발표. Ossy Dermawan ATR/BPN 차관은 사업의 공간적 확실성과 토지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국가공간계획(RTRWN) 개정을 추진 중이며, ATR/BPN의 지원이 ①공간계획(RTR) 정합화, ②중앙·지방 차원 공간계획 조정, ③토지 수용 지원의 3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
 - ATR/BPN은 GSW 사업이 국가전략프로젝트(PSN)로 지정될 경우 공간이용활동적합성(KKPR) 발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며, 자바 북부 조위 침수 위협 완화를 위한 부지 확보를 전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 Ossy 차관은 행정 절차 지연 없이 토지 지도 통합 및 중첩 정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플랜트] 스위스 Axpo Group, 글로벌 원자력 발전 부흥 전망에 회의적 견해 표명²⁾(Nikkei Asia, 5/6)
 - 스위스 최대 전력 생산 기업 Axpo Group의 Christoph Brand CEO는 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이후 원자력 관심이 재고되는 상황에도 글로벌 원자력 발전 부흥 전망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표명. Brand CEO는 원자력이 현재 글로벌 전력 생산의 약 10% 수준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중이 지속 감소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고려할 때 절대 발전량 측면에서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506/45/1971750/kementerian-atr-bakal-siapkan-lahan-untuk-proyek-giant-sea-wall>
2) <https://asianikkei.com/business/energy/swiss-energy-company-chief-casts-doubt-on-nuclear-renaissance>

원자력의 대대적 확대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언급

- 베트남은 3월 말 러시아와 Ninh Thuan 1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년 내 500MW 원자력 발전 용량 확보 후 10~15년 내 7GW까지 확대 목표를 설정. 필리핀은 2035년까지 2.4GW, 태국은 2037년까지 600MW를 추진 중이며, 일본과 한국은 기존 원전 재가동을 검토 중.
- Brand CEO는 신규 원자력 사업이 높은 비용과 빈번한 지연으로 정부가 대부분의 재정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며, 풍력·태양광·가스 발전소가 원자력보다 훨씬 빠르게 건설 가능하다고 설명

○ [인프라] Danantara, 6개 지역 WTE 사업 양해각서 MoU 체결³⁾(Antara, 5/11)

- Danantara는 산하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를 통해 5월 11일 Lampung, Serang, Medan, Semarang, Bogor-Depok, Bekasi 6개 지역의 폐기물 발전소(WTE) 건설 가속화를 위한 MoU를 해당 지방정부들과 체결.
- Zulkifli Hasan 식량담당장정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본 사업이 일일 1,000t 이상 폐기물 발생 지역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 인니 정부는 폐기물 비상 사태에 직면한 62개 시·군을 포함한 25개 지역에 WtE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의 절반은 2027년, 나머지는 2028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
- 본 사업은 2025년 대통령령 제109호를 법적 근거로 추진되며, Danantara는 2025년 11월 입찰을 개시하고 2026년 3월 초 Greater Denpasar, Bekasi City, Greater Bogor 3개 사업의 낙찰자를 발표. 동 3개 사업 협력 계약은 4월 21일 체결되었으며, 5월 4일에는 자카르타 주정부와의 별도 MoU도 체결된 바 있음. Pandu Sjahrir Danantara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본 폐기물 관리 사업 총 자금 조달 규모가 약 50억불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3) <https://enantaranews.com/news/415423/indonesias-danantara-signs-deals-for-six-waste-to-energy-projects>

○ [인프라] MTI, 자카르타 LRT PIK2 연장 우선순위 제기⁴⁾(Bisnis, 5/18)

- 인도네시아교통협회(MTI) 철도교통포럼의 Deddy Herlambang 의장은 자카르타 LRT 노선을 Pantai Indah Kapuk(PIK) 2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Manggarai-Dukuh Atas 노선 연장보다 더 시급하다고 평가
- Deddy 의장은 PIK 지역에 주거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철도 교통이 없는 반면 Manggarai-Dukuh Atas 구간은 이미 KRL(전철)로 연결되어 환승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개발 우선순위를 PIK2 신규 노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Dukuh Atas 방면 노선은 신규 역사 건설 부지 부족 문제도 있어, 정부가 Dukuh Atas 방면 추가 개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PIK2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
- 앞서 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LRT 사업 연장 방안으로 Manggarai-Dukuh Atas 노선 완공 또는 PIK2 노선을 Soekarno-Hatta 공항까지 연결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Pramono 주지사는 현재 자카르타 대중교통 통합 수준이 약 93%에 도달했으며, Ancol-PIK2-Soekarno-Hatta 공항으로 이어지는 미연결 구간이 완성되면 자카르타 교통이 하나의 순환망으로 완전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플랜트] 중국 CCEPC, 인니 내 발전 사업 약 14GW 보유⁵⁾(Bloomberg, 5/20)

- 중국 국영 엔지니어링 기업 MCC(Metallurgical Corporation of China)의 자회사 China City Environment Protection Engineering Limited(CCEPC)는 민자발전사업자(IPP) 방식으로 인니에 진출하여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그 발전 용량이 총 약 14GW에 달한다고 밝힘. Gao Hai CCEPC 전무이사는 5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청년기업인협회(HIPMI) 행사에서 동사가 인니 전역에 55개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이 중 7.59GW는 가동 중, 나머지는 건설 중이라고 설명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00518/98/1974492/mti-sebut-proyek-lrt-jakarta-ke-pik-lebih-mendesak-ini-alasannya>

5) <https://www.bloombergtchnoz.com/detail-news/109568/bum-china-pegang-14-gw-proyek-pembangkit-listrik-di-indonesia>

- 국영전력공사 PLN의 Rizal Calvary 발전관리이사는 현재 인니 발전의 70~75%가 IP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IPP가 발전소 소유자로서 PLN의 투자·재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
- 2025-2034년 국가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상 PLN은 최소 약 1,698억불 (3,000tril IDR)의 투자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발전 부문 약 1471억불 (2,600tril IDR), 송전·변전 부문 약 169억불 (300tril IDR), 배전 부문 약 56억불 (100tril IDR)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IPP가 이러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국부펀드] Danantara, Indonesia Financial Center(IFC) 별도 관리 기관 설립 방침 발표⁶⁾(Antara, 5/5)
 - 국부펀드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5월 5일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 회의 후 IFC 설립 사업이 별도 관리 기관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발표. IFC는 현재 초기 논의 단계로 경제조정부, 재무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간 조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협의 결과는 추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인니 정부는 규제 체계, 법적 틀, 글로벌 금융 산업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 중이며 두바이·아부다비·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IFC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
 - 사업 부지는 발리 지역이 검토 대상이며, 정부는 발리 내 금융 부문 특별경제구역(KEK) 설치 규제를 정비 중이고 Kura-Kura KEK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거점으로 준비되고 있음. 2026년 1분기까지 발리 내 KEK 구역의 집행 완료 투자액은 약 3억불 (5.37tril IDR) 규모이며 Danantara는 IFC 구역 개발 주도 기관 중 하나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6) <https://www.antaraneWS.com/berita/555436/ceo-danantara-indonesia-financial-center-akan-dikelola-badan-khusus>

○ [현지정부] 인니 정부, 글로벌 투자자에 상류 부문 석유·가스 개발 협력 제안⁷⁾
(CNN Indonesia, 5/6)

- 5월 5일 미국 휴스턴에서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의 일환으로 개최된 Indonesia Untapped and Frontier Resources 포럼에서 인니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 및 에너지 기술 기업에 상류 부문 석유·가스 개발 협력을 제안
- Indroyono Susilo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는 규제 개선, 법적 확실성 확보, 경쟁력 있는 석유·가스 광구 준비 등을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Abadi Masela 등 전략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 Wilson Pariangan SKK Migas(석유가스 감독청) 유전개발 선임 매니저는 인니 내 128개 석유·가스 분지 중 현재 생산 중인 분지가 20개에 불과하며 43개는 탐사 단계, 65개는 미개발 상태로, 석유 매장량 27억 배럴, 가스 매장량 39.35조 입방피트(TCF)⁸⁾, 광구 158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 Oki Muraza Pertamina 부사장은 2025년 Pertamina가 총 20개 탐사정을 시추하여 이 중 8개에서 신규 매장량 발견에 성공하였으며, 2D 탄성과 탐사⁹⁾ 2,931km와 3D 탄성과 탐사 855km² 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 또한 Rokan 블록 등 주요 광구에서 EOR¹⁰⁾(회수증진)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광구의 생산성을 높여온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등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
- 가스 부문에서도 수마트라-자바 간 인프라 강화 및 인니 동부 지역의 공급 거점 육성을 투자 기회로 제시하였으며, 인니 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CCUS¹¹⁾(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과 세계 최대 규모인 24GW 지열 발전 잠재량도 신규 투자 분야로 제시

7)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00506153108-625-1355818/indonesia-giak-investor-dan-penyedia-teknologi-dunia-garap-hulu-migas>

8) TCF (Trillion Cubic Feet): 가스 부피 단위, 조 입방피트

9) 탄성과 탐사: 인공 진동파로 지하 지층 구조를 파악하는 탐사 기법. 2D는 선 단위(km), 3D는 면적 단위(km²)로 측정

10) EOR(Enhanced Oil Recovery): 회수증진 기술. 화학물질 또는 열을 주입하여 기존 광구에서 추가 원유를 회수

11)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저장

- [해외기업] Rosatom, 인니 원자력 발전 시장 잠재력 평가¹²⁾(Jakarta Globe, 5/13)
 -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Rosatom의 Alexey Likhachev 사장은 Investor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지역의 주요 잠재 원자력 시장으로 평가. Likhachev 사장은 인니가 경제 성장세 및 장기 청정에너지 목표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크며, 전력 공급사업계획(RUPTL)에 따라 2040년까지 7GW, 2060년까지 35GW 원자력 발전 용량 개발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또한 인니는 이미 연구용 원자로 3기, 훈련된 인력 및 안정적인 원자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신규 진입 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평가
 - 또한, 인니 군도 지형에 적합한 기술로 소형모듈원자로 및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제시하였으며,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운영 후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회수를 Rosatom이 직접 수행해 도입국의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Rosatom은 자사 원자력 기술이 지진 및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튀르키예 Akkuyu 원전이 2023년 대지진 시 안정성을 유지한 사례를 제시. 또한 인니가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제안
- [현지기관] PLN EPI, Sorbu Agro Energi와 Gorontalo 수수 기반 바이오 에너지 개발 협력¹³⁾(OG indonesia 5/20)
 -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PLN EPI)¹⁴⁾는 에너지 전환 지원 및 탄소중립(NZE)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5월 18일 자카르타에서 PT Sorbu Agro Energi와 수수(sorghum) 기반 바이오에너지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12) <https://jakartaglobe.id/news/gp-rosatom-on-indonesias-nuclear-energy-potential>

13) <https://www.ogindonesia.com/2026/05/pln-epi-gandeng-sorbu-agro-energi.html>

14) PLN EPI (PLN Energi Primer Indonesia): 국영전력공사 PLN의 1차 에너지 자회사

- Hokkop Situngkir PLN EPI 바이오매스 담당이사는 바이오매스가 발전소의 석탄을 일부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 기반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인니 정부의 Asta Cita 의제 (국가 에너지·식량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설명. PLN EPI는 석탄 화력발전소(PLTU) 혼소 용으로 약 14종의 바이오매스를 개발하였으며, 약 100건의 협력을 통해 약 100만t 규모의 바이오매스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태
- 본 협력에서 PLN EPI는 바이오매스 구매자(off-taker) 및 1차 에너지 생태계 개발자 역할을, Sorbu Agro Energi는 수수 재배 활동을 담당. Verdi Budiman Sorbu Agro Energi 이사는 동사가 현재 술라웨시 섬 Gorontalo주에서 약 10,000ha 규모의 양허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 임업 프로그램을 통해 40,000ha까지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
- 초기 개발은 Anggrek 북부 Gorontalo 석탄화력발전소(PLTU)에서 약 56km 떨어진 Totopo 마을의 218ha 규모로 진행되며, 정부·지역사회·민간·학계·언론이 참여하는 펜타헬릭스(pentahelix) 15) 방식으로 추진. 양측 협력 범위에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연구, 술라웨시 바이오매스 허브 개발, 기술 검토,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검토 등이 포함
- [해외기업] UAE Mubadala Energy, 인니 일일 100만 배럴 생산 목표 지원 의사 표명¹⁶⁾(Kontan 5/20)
 - UAE 에너지 기업 Mubadala Energy는 Banten Tangerang ICE BSD 에서 개최된 IPA Convex¹⁷⁾ 2026 행사에서 인니 정부의 일일 100만 배럴(bph) 석유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Varian Ignatius Mubadala 지역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사는 동사가 인니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인니가 동남아 지역 내 동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 Varian 이사는 정부와의 강력한 시너지가 동 목표 실현의 핵심이라고 평

15) 펜타헬릭스 (Pentahelix): 정부·민간·학계·지역사회·언론 5개 주체가 협력하는 개발 방식

16) <https://industri.kontan.co.id/news/perusahaan-uea-mubadala-energy-siap-bantu-indonesia-kejar-target-1-juta-barel>

17) IPA Convex: 인도네시아석유협회(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주최 연례 컨벤션·전시회

가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별도로 Mubadala는 Andaman 광구에서 신규 가스 매장량을 잇따라 발견하며 인니 내 주요 가스 생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 Varian 이사는 Tangkulo, Andaman, 그리고 약 2개월 전 Southwest Andaman에서의 가스 발견을 언급하며, 향후 생산 단계 진입 시 동사가 인니 내 주요 가스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아울러 Mubadala는 기존 자산뿐 아니라 인니 내 신규 광구 탐사를 위한 투자 기회도 지속 모색 중

3. 정부 정책동향

- AHY 조정장관, Giant Sea Wall 미건설 시 2050년 자바 북부 해안 침수 위험 경고¹⁸⁾(Bisnis, 5/5)
 - Agus Harimurti Yudhoyono(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자바 북부 해안 보호 인프라 통합 착수 회의에서 Giant Sea Wall(거대 방조제, GSW)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2050년 자바 북부 해안(Pantura)이 조위 침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 AHY 장관은 자바 해안 지역이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반 침하는 연 1~20cm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고 자카르타와 Semarang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 해수면 상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연 0.8~1.2cm로 기록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 부재 시 생산 활동 지역 침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극심한 조위로 인한 홍수와 함께 물 부족 및 물 위기 문제도 동반되고 있다고 언급
 - 자바 북부 해안 관리청(BOPPJ)의 Didit Herdiawan Ashaf 청장은 앞서 2026년 2월 23일 자카르타 기자회견에서 GSW 사업비를 약 800억~1,000억불 규모로 추산. 동 사업은 Banten 서부에서 출발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00505/45/1971482/ahy-pantura-jawa-terancam-tenggelam-di-2050-jika-giant-sea-wall-tak-dibangun>

하여 Jawa Barat을 거쳐 Jawa Timur Gresik까지 총 535km 구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공되며, 자카르타와 중부 자바의 Kendal · Semarang · Demak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우선 시공 대상. 현재 GSW 사업은 현장 기술 사항 심화 검토를 위한 연구 및 후속 완화방안 수립 단계에 있음

○ 인니-싱가포르, 에너지 · 투자 협력 강화 합의¹⁹⁾(Tempo, 5/12)

- Sugiono 인니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 자카르타 외교부 청사에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 본 회담은 Balakrishnan 장관의 5월 11~13일 자카르타 실무 방문 및 인니-싱가포르 정상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양국 파트너십 전략 방향 재정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경 간 전력 거래 및 지속가능 에너지 사업 투자가 핵심 협력 사안으로 논의되었으며, Balakrishnan 장관은 인니가 태양광 · 지열 · 수력 등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싱가포르의 기술 · 인프라 금융 거점 역할과 상호 보완 가능하다고 평가
- 양국은 지난해 Prabowo 대통령과 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국경 간 전력 거래 사업 및 지속가능 산업단지 개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며, 식량 안보 분야 농업비즈니스 협력 및 Batam-Bintan-Karimun · 중부 자바 Kendal 산업단지 협력도 지속 추진. 양측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중동 정세가 에너지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헌법재판소, 신수도법 위헌소송 기각 — 대통령령 발령 전까지 수도는 Jakarta로 유지²⁰⁾
(Metro TV, 5/12)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는 5월 12일 2022년 제3호 신수도법

19) <https://en.tempo.co/read/2103261/indonesia-singapore-agree-to-enhance-energy-investment-ties>

20) <https://www.metrotvnews.com/read/NWC8CP4-nk-tolak-gugatan-uu-ikn-ibu-kota-negara-ri-tetap-jakarta>

(UU IKN)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하고, 수도 이전 관련 대통령령 (Keputusan Presiden)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니 수도는 Jakarta로 유지된다고 확인. Suhartoyo 헌법재판소장은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사건번호 71/PUU-XXIV/2026 심리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 위헌소송은 신수도법 제39조 및 제41조가 수도 이전의 공식 근거로 대통령령 발령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아 수도가 자카르타인지 신수도 (Nusantara)인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졌다고 주장
- 이에 대해 Guntur Hamzah 헌법재판관은 신수도법 제39조 제1항이 수도 이전 관련 대통령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수도의 지위 · 기능 · 역할이 DKI Jakarta에 유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없으며,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는 한 Jakarta가 법적으로 인니 수도로 유지된다고 판시
- 헌법재판소는 신수도법 제정 및 정치적 합의로 신수도 이전 방침이 확정된 상태이나,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아 수도 이전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카르타 명칭을 DKI Jakarta에서 DKJ로 변경한 2024년 제2호 법(UU DKJ) 시행으로 자카르타의 수도 지위에 헌법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기각하였으며, UU DKJ 제73조가 수도 이전 관련 대통령령 발령 후 효력 발생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공백이 없다고 판단

○ Prabowo 대통령, 산업화 · 다운스트림 강조²¹⁾(Bisnis, 5/20)

- Prabowo 대통령은 5월 20일 자카르타 Gedung Nusantara에서 열린 인니 국회(DPR) 제19차 본회의에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 및 다운스트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본 본회의는 2027년 예산안 (RAPBN) 관련 거시경제 운용계획(KEM) 및 재정정책 기조(PPKF) 제출을 위한 회의였으며, Prabowo는 인니가 타국의 시장으로만

2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520/45/1975275/prabowo-mau-dorong-industrialisasi-begini-respon-hki>

머물지 않도록 자동차, 오토바이, TV, 컴퓨터, 휴대폰까지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Akhmad Ma'ruf Maulana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 회장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산업화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산업단지가 투자 유치, 산업 다운스트림 가속화, 일자리 창출, 제조업 수출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속 경제 경쟁력 유지에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
- HKI는 제조업 부문 투자의 빠른 성장이 외환 수출 증대를 통해 루피아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산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인허가 가속화 및 공간 계획의 확실성 보장을 통해 투자 생태계를 조속히 강화할 것을 촉구.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 세계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인니가 거대 내수시장, 인구 보너스,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라고 평가

4. 녹색산업 동향

○ 인나-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녹색에너지·기후 협력 추진²²⁾(RRI, 5/11)

-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3개국은 환경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Jumhur Hidayat 인니 환경부 장관과 Fadjroel Rachman 주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인니 대사가 본 협력을 주도하며,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발전, 수력 발전 등이 핵심 협력 분야. Jumhur 장관은 3개국이 기후변화·폐기물 관리·녹색에너지·투자 분야 공통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하며 MoU 협력 범위로 지식 이전, 녹색 투자, 시범 사업 3가지를 제시
- Fadjroel 대사는 대규모 수력 발전이 핵심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이 2024년 조코위 전임 대통령 재임 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고, 타지키스탄의 수력 발전 기술력 사례로 Norak

22) <https://mi.caid/en/international/2406273/indonesia-kazakhstan-tajikistan-explore-green-energy-and-climate-cooperation>

Dam(3,000MW) 및 세계 최고 높이의 Rogun Dam(계획 용량 3,780MW)을 제시. 또한 2025년 12월 체결된 인도네시아-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I-EAEU FTA)을 활용한 녹색 경제 협력 기회와 3개국 국영기업 및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 예정

○ Pertamina NRE,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모색²³⁾(Antara 5/16)

- 인니 국영석유가스회사 Pertamina의 자회사 Pertamina NRE는 Copenhagen Urban Solar Parks BD Ltd(CUSP, 덴마크-방글라데시 합작 태양광 개발 기업)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력을 모색. 본 협력은 태양광 발전(Solar PV)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O&M) 협력 기회 발굴을 포함하며, 양측은 기술·시장·사업·환경·법률·사업 리스크 측면을 포괄하는 타당성조사(FS)를 수행할 예정
- John Anis Pertamina NRE 사장은 본 파트너십이 방글라데시 청정 에너지 사업 투자 기회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하며, Pertamina NRE의 필리핀 내 자사 사업 기준 현재 1GWp 이상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2.6GW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실적이 방글라데시 사업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 CUSP의 Ziaur Rahman 회장은 본 협력이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청정에너지 솔루션 도입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

○ 중국 DOGO Power, 인니 국제 석탄·에너지 박람회서 광산용 에너지저장 솔루션 소개²⁴⁾
(Antara 5/18)

- 중국 DOGO Power는 2026 인도네시아 국제 석탄·에너지 박람회에서 인니 광업 부문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드포밍(grid-forming) 에너지저장 및 그린 광산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소개. 동사는 본 기술이 특히 비계통(off-grid)²⁵⁾ 지역 광산 운영의

23) <https://en.antaranews.com/news/415941/pertamina-nre-eyes-renewable-energy-development-in-bangladesh>

24) <https://en.antaranews.com/news/416117/dgo-power-grid-forming-energy-storage-empowers-green-transformation-of-indonesias-mining-industry>

25) 비계통 (Off-grid): 주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 전력 공급 방식

전력 공급 및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4S 그리드포밍²⁶⁾ 기술을 통해 에너지 관리, 전력 관리, 에너지저장 변환, 배터리 관리 4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주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며 정전 시 2분 이내 블랙스타트(black start)²⁷⁾가 가능하다고 설명

- DOGO Power에 따르면 자사 배터리는 10,000회 이상 충전 주기와 87% 시스템 효율, 15년 이상 수명을 제공하며,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저장-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사업비 20% 이상 절감 및 설계 기간 단축이 가능. 또한 광산 전력 비용을 기존 디젤 발전 기준 kWh당 0.28~0.40불에서 0.12~0.16불로 낮춰 가동 첫날부터 15~20%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투자 모델 기준 3~5년의 투자 회수 기간이 예상된다고 설명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유료도로 Karangjoang-KKT Kariangau 구간, 2026년 말 준공 목표²⁸⁾ (Bisnis, 5/8)
 - PT Utama Karya는 5월 8일 신수도 유료도로 Section 3A-2 Karangjoang-KKT Kariangau 구간 건설 사업의 2026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 Hamdani Utama Karya 기업비서 직무대행은 본 인프라가 관계 당국의 안전성 평가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 본 7.3km 유료도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착공되었으며, Balikpapan-Samarinda 유료도로와 신수도 정부핵심업무지구를 직접 연결
 - 본 구간은 평면 도로 2.34km와 지반 불안정 대응 고가 파일 슬래브 1.745km로 구성되며, 2026년 5월 기준 도로 포장, Slab-on-Pile 구조, Steel Box Girder 설치 단계에 있음. 개통

26) 그리드포밍 (Grid-Forming): 전력망 없이 독자적으로 전압·주파수를 형성·유지하는 에너지저장 기술

27) 블랙스타트 (Black Start): 외부 전력 없이 발전 설비를 자체 재가동하는 기능

2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508/45/1972345/tid-ikn-seksi-karangjoang-kkt-kariangau-dibidk-rampung-tahun-ini>

시 Sultan Aji Muhammad Sulaiman Sepinggan 국제공항에서 신수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 Hutama Karya는 PT Adhi Karya, PT Nindya Karya, PT Brantas Abipraya와 통합공동운영(IJO)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Clay Shale(점토 셰일) 지반 및 높은 강우량 대응을 위해 BIM 및 LiDAR 등 디지털 건설 기술을 적용

- Pramono 자카르타 주지사·신수도청, 헌법재판소 판결 후속 입장 표명, 신수도 사업은 지속 추진²⁹⁾(Tempo, 5/15)

- 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5월 13일 인니 수도가 자카르타로 유지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사건번호 71/PUU-XXIV/2026)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의 기존 행정 조치가 본 판결과 일관되게 부합해 왔다는 입장을 표명. 주지사는 수도 이전 대통령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모든 활동이 DKI³⁰⁾ 명칭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본 판결과 무관하게 자카르타 주정부의 행정 체계가 유지될 것이라 설명
- 신수도청(OIKN) 측 Troy Pantouw 대변인은 본 판결이 신수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카르타에서 신수도(Nusantara)로의 수도 이전이 대통령령 발령 후에 비로소 공식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 신수도 개발은 단계적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앞서 5월 12일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제3호 신수도법(UU IKN) 위헌소송을 기각한 바 있음

29) <https://en.tempo.co/read/2103778/ikn-project-continues-as-jakarta-remains-indonesias-capital>

30) DKI (Daerah Khusus Ibukota): 수도특별주. 자카르타가 인니 수도로서 가진 행정구역 명칭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최종 FS 완료단계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7월 예상)

○ (주요동향) 주주간 계약서 양식·조건 협상

② 란닥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사업개발비 투입, FS 검토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의결

○ (주요동향) 원개발사-KIND 및 금융기관 협의 계속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GS건설 자체DD 및 현지파트너 토지 실사 계속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완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용역 입찰 유찰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대출약정 체결 ('26.1.15)
- ('26년 센터목표) 금융종결 / 프로젝트운영실 이관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공정률 양호 / 임차협상 계속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 5월 3~4주차)
 - 네트워킹 5건 : 건설공제조합 · BNG컨설팅, GGGI 인도네시아, GS건설 · KDB 리스법인 · 삼성물산 상사부문, HS화성, GGGI 인도네시아
 - 사업개발 8건 : 유신, 주인니대사관 · 수자원공사, 시나르마스랜드, 주택정주부 · 서민주택공사, Muns Bangun Cipta, 삼성물산 · 철도공단 · 플레너리, PT Gonggam Teknik, ST그룹
 - 대관업무 2건 : 주인니대사관 · 주아제안대표부 · 국가철도공단, 주인니대사관 · 환경산업기술원